

* 마을사 *

신유리·新柳里

신유리는 도고면의 한 마을로서 도고산과 일출봉 아래 위치해 있으며, 작게는 버들, 인추골, 팽나무쟁이의 세 마을로 나뉜다. 본래는 신창군 남성면의 지역인데 1914년 실시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리, 유동, 도촌 일부를 병합하여 신리와 유동의 이름을 따서 신유리라 하며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인구수는 총 224명이며, 가구수는 78호이며, 신유리의 관광자원인 도고저수지는 1929년 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도고산과 함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유리 위치도>

☒ 버들 마을(신유리)

신유리는 버들, 인추골, 팽나무쟁이의 세 마을로 형성 되었으며, 그 중 주된 마을은 버들 마을이며, 버들마을은 벌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앵소유지형"의 명당이 있다하며, 현재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버들 남쪽에 있는 일출봉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성황제를 올린다. 인추골은 일출봉 밑에 새로 이룩된 마을이라 하여 인추골이라 하며, 팽나무쟁이 마을은 덕암리로 가는 세 갈래 길목에 있는 마을로 팽나무 정자가 있다 하여 팽나무쟁이라고 한다.

<조사당시 신유리 마을관련 사진>



1) 위치

버들 마을은 위도 36-44-10, 경도 126-55-10인 지역에 위치하며, 아산에서 도고 방면으로 가다 도고 저수지 쪽으로 645번 도로를 따라가면 시전리와 도산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2) 현황

버들마을의 인구는 남자 113명, 여자 111명으로 총 224명이며 호구수는 78호에 이른다.
주민들의 98.2%가 농업에 종사하며 1.8%가 축산업을 한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버들마을	224명	113명	111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버들마을	100%	98.2%	1.8%

버들 마을 전체 논·밭 면적은 논 30.3ha과 밭 29ha이며, 다른 마을에 비해 밭농사가 많아 전문적으로 채소만 재배하는 곳이 있고, 수박, 쪽파, 담배를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농기구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팩트, 트랙터 등이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앰프가 구비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농약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버들마을	59.3ha	30.3ha	29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버들마을	1개소	1개소	-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윤씨 14%, 김씨 10%, 이씨 10%, 권씨 9%, 신씨 6%로 주된 성씨를 이루고 있었으며 연령층은 20~30대로 비교적 젊은층이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윤 씨	김 씨	이 씨	권 씨	신 씨	기 타
버들마을	78호	11호	8호	8호	7호	5호	39호

- 최고령자

버들 마을의 최고령자는 신 태근로 87세이시다.

3) 자연경관

버들 마을은 도고저수지가 있으며 남쪽에는 앵소유지형 명당이 있는 일출봉이 있다. 마을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어 휴식처로 사용하며,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어 논농사와 밭농사에 도 부족함이 없으며 도고산과 일출봉이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4) 마을 변천 과정

버들 마을은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리, 유동, 도촌 일부를 병합하여 신리와 유동의 이름을 따서 신유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신유리에서 가장 발달한 버들과 인추골에는 비교적 인구가 많으며 노인회관 앞의 200년 된 정자나무로 보아 이 마을의 형성년대가 서기 1800년경으로 약 20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까지 인구가 많았으나 갑작스런 전쟁으로 동네 청·장년층의 인구뿐만 아니라 노약자까지 많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에 피난민들과 본래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신유리를 형성하였다. 한편 처음으로 터를 잡은 성씨는 밀양 박씨이나 현재는 거의 살고 있지 않다.

6) 지 명

- 버들 : 별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앵소유지형"의 명당이 있었음.
- 별말 : 도고저수지 남쪽 별판에 있는 마을.
- 인추골(일출골) : 일출봉 밑에 새로 형성된 마을.
- 팽나무쟁이 : 덕암리로 가는 세 갈래 길목에 있는 마을로 팽나무 정자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
- 부영매 : 별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부영이와 같다 하여 부영매라 함.
- 일출봉 : 버들 남쪽에 있는 산으로 앵소유지형의 명당이 있다는 곳임.
- 도고저수지 : 신유리 앞에 있는 저수지로 1929년 3월에 도고산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듦.

7) 전 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마을에 큰 불화가 없고 항상 안전을 기하기 위해 정월 보름이면 성황제를 올린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이장을 중심으로 산에 올라가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十 열사 이 민학 선생

본관은 덕수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형인 이효신의 11대손으로 1856년(철종 7년)에 아산군 도고면 신유리에서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강직한 성품과 총명함을 소유했음은 물론이요, 부모님께 대한 효성 또한 지극하여 그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어서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강한 결의 같은 것이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런 결의는 그의 평생을 두고 한결 같은 것이었다. 후에 장성하여 부인 김씨와 결혼하여 아들 준영과 딸 셋을 두었는데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용감하였으며, 목숨을 아까워 하지 않는 정열, 즉 애국심이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 있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앞서 한 나라의 군인으로써 임무를 충실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던 이준영 참위가 아깝게도 서울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민학씨는 분노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라의 일에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였다. 그후 일본 헌병대에서는 그 유가족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심해졌으므로 이민학씨는 집을 나와 의병 단체에 가담하였다. 아들의 원수 그보다는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의병 활동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되던 의병 활동도 친일파 단체인 일진회 회원중 한사람의 밀고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이 민학씨는 이제 자신의 앞일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지만, 비굴하게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 당시 함께 체포되었던 의병 3명과 함께 예산군 광시면 주를 참나무정 아래에서 1908년 9월 10일 총살 당하였다고 한다. 향년 52세였다.

十 열사 이 준영 선생

이준영씨의 본관은 덕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군 충무공의 형인 이효신의 12대손이다. 1879년(고종 16년) 1월 9일 도고면 신유리에서 아버지 이민학씨와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준영이 14세가 되었을 때에 천안군 목천면 컷골 박영성씨의

18세 따님과 혼인했다. 박영성씨는 훈련원 관관 벼슬을 지낸 분으로 그의 덕망과 인품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을 정도였다. 준영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다가 18세에 상경하여 전보학교에 입학하였다. 21세에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2년 과정을 마치고 23세에 견습참위로 임관되어 왕궁을 수비하는 친위대와 시위대에서 1년간 근무한 다음 24세에 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25세에 정규참위로 임관되어 강화도에서 근무하다가 28세 되던 1907년 4월에 진위대 제 2연대 1대대로 전속되어 서울에서 왕궁을 경비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이즈음, 1907년 7월에 이준열사의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 황제는 퇴위당하고 순종 황제가 즉위하였다. 진위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은 을미년에 국모가 시해된 이후로 항상 원수 갚을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일본은 더욱 침략을 노골적으로 들어내어 가고 겨레의 멸망이 박두하니 박승환 참령은 강개하여 눈물을 지우면서 오직 한번 죽어서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 생각하였다. 이등이 황제를 폐위시킨 날 궁중에서 거사하려 하였으나 화가 황제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하여 중지하였다. 1907년 8월 1일 장곡천이 각 대장을 소집하였는데 박승환 참령은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더니 때마침 군대 해산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슬피 울부짖더니 드디어 권총을 빼어 자살하였다. 이러자 본대의 장졸들이 일시에 격분하여 즉시 탄약고를 부수고 탄환을 꺼내어 한 번 싸움을 결행하고 죽고자 하였다. 이준영 참위는 박승환 참령의 애국 정신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자신의 한 목숨 나라에 바쳐 남아다운 생애를 다하고자 결심을 굳히었다. 이리하여 박승환 참령이 한국군 해산에 항거하여 자살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진위 1연대 1대대와 2연대 1대대의 장병들이 무장 철기하여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로서 소대장 이준영 참위는 일본군에 항의하여 경성지역을 무대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 많은 일본군 병사를 사살하였다. 이에 일본군 사령관이 급히 군대 수천명을 집결하여 풍우처럼 달려와 포위 공격하니 이준영 참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대를 영내에서 창문 틈으로 발사하여 부대장과 그의 졸병 100명을 사살하였다. 일인들은 다시 남대문의 성벽에 자리잡고 기관포를 발사하면서 천둥, 벼락같은 소리로 공격하여 왔다. 이준영 참위는 동료 장교 남상덕, 이충순 동지와 함께 소대, 장병을 지휘하면서 남대문 성벽에 자리잡은 일본군과 접전하여 악전 고투하였다. 그리고 상인, 노동자 및 아낙네들까지도 나와서 성세를 도왔다. 소위 태전이 폭약을 가져다 영내에 던지니 우리의 군대가 드디어 영문을 탈출하여 일병에게 돌격 접전하였다. 피아가 살상이 대단하였으나 마침내 탄환이 떨어져 겹겹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다가 적탄에 명중되어 관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를 일기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위 가지와라 특무조장 후지다 등의 중상을 입었고, 많은 군졸들이 살상되었다. 한국군측은 장교 13명과 준사관, 하사, 군병 57명이 전사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군에게 쫓긴 나머지 한국군은 산 속으로 피하여 의병에 가담하여 끝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0) 종교현황

신유리에는 종교단체가 전혀 없고 천주교는 도고역에 있는 곳에 다니고 있고 기독교는 화천리로 다닌다.

11) 공장현황

신유리에는 공장이 전혀 없다.

12) 마을의 특성

신유리 마을의 특성은 도고저수지, 도고산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으며, 마을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어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는 마을로서 수박과 쪽파, 그리고 담배를 특수작물로 하는 마을이며,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정서가 깊게 깔려 있는 마을이다.